

'관광'으로 지역경계 허문다

무주·영동·금산군 협업 효과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이 함께 하는 3도 3군 관광협의회가 지역 간 경계를 허문 활발한 협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 창조지역사업(‘금강따라 걷는 삼도삼미길’)으로 국비를 유치하고 △일본 아이야마시청 관광국과의 교류, △지역 간 축제 문화공연 교류(무주반딧불축제, 영동난계국어축제, 금산인삼축제) △중화권과 파워 블로거를 대상으로 한 페어를 통해 4천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태권도원(무주)과 노근리 평화공원(영동), 한방스파체험(금산) 등 새로운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의

상품도 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농·식품부 창조지역사업 공모로 선정된 ‘금강 따라 걷는 삼도삼미길’ 사업은 2014년부터 준비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국비 4억 8천만 원을 포함해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무주태권도원과 구천동계곡, 영동동굴체험장, 영동반딧불과 노근리, 금산 한방스파체험장, 금산 한방스파 & 인삼약초시장과 영동체험 및 토종백숙상품(3~11월)으로 출시됐으며 국가축제체험과 전통시장식사 공방체험장, 수도권 외국인 대상 시티투어상품, 온라인 블로거단 행사가 비정기상품으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올해는 3도 3군 관광벨트화 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와 모객지원, 지역별 관광콘텐츠 홍보, 해외교류 및 벤치마킹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난 29일 영동군청에서 황정수 무주군수와 박세복 영동군수,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한 세 지역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이 총회를 개최, 관련 내용들을 공유했다.

이어서 기대를 모고 있다.

3도 3군 관광협의회는 2007년 12월 중부 내륙권 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발족된 것으로, 그동안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설명회 개최, 관광 홍보물 제작(한국어, 일본어, 대만어 판 제작 외료 / 중국어, 영어판 제작 중)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무주태권도원과 구천동계곡, 영동동굴체험장, 영동반딧불과 노근리, 금산 한방스파체험장, 금산 한방스파 & 인삼약초시장과 영동체험 및 토종백숙상품(3~11월)으로 출시됐으며 국가축제체험과 전통시장식사 공방체험장, 수도권 외국인 대상 시티투어상품, 온라인 블로거단 행사가 비정기상품으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올해는 3도 3군 관광벨트화 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와 모객지원, 지역별 관광콘텐츠 홍보, 해외교류 및 벤치마킹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난 29일 영동군청에서 황정수 무주군수와 박세복 영동군수,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한 세 지역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이 총회를 개최, 관련 내용들을 공유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과 영동·금산군이 지역 간 경계를 허문 협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진안 운장산 고로쇠축제 내달 12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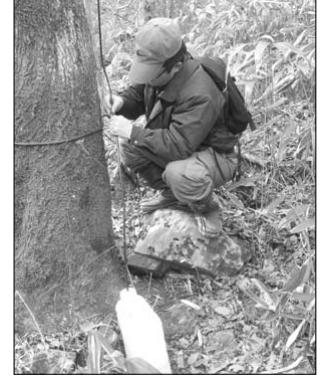
주천 대불리 삼거광장서

진안군이 오는 3월 12일(토) ~ 13일(일) 이틀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삼거광장에서 제1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를 개최한다.

진안군이 주최하는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위원회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여러차례 시전협의와 정기총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체험거리가 풍부한 내실있는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축제는 주민과 관광객 등 6천여명이 찾았으며 깨끗한 품질로 믿

을 수 있는 고로쇠 수액을 판매해 농하기 고로쇠 농가에게 둑록한 혜자 노릇을 하였다. 특히 운장산 고로쇠 수액이 큰 인기를 끌어 준비한 물량이 금새 동이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물려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돼 성 공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 올해는 주민이 직접 포스터 모델이 되어 ‘100세 인생, 진안 고로쇠 먹고 건강하게!’라는 콘셉트로 포스터 활용을 해 주민참여형 포스터를 제작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으뜸 부동산 전문상담소’ 운영

완주군이 군민 맞춤형 ‘으뜸 부동산 전문상담소’를 운영한다.

군은 3월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으뜸 부동산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으뜸 부동산 전문상담소’는 공인중개사들이 재능기부로 이뤄져며, 매주 수요일 펼쳐지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에 방문하거나 전화(063-

290-2965)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상담소 운영을 위해 다음달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완주군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3월 9일부터 공인 중개사 9명의 재능기부를 통해 순번 제로 무료 운영된다.

상담내용은 전·월세 분양민원상담, 전·월세 물량정보 등 부동산 전반의 정보와 무료중개서비스 등으로, 무료

중개서비스는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1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중개보수료 저감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춘식 실장은 “사회적 약자를 살펴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 맞춤 복지도시를 만드는 것이 군의 목표라”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저소득층 주거안정 목적

기아드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학 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최영함은 아프리카 지부티 어린이들에게 기증받은 도복을 선물했다.

지부티에 울려 퍼진 태권도 함성

(아프리카)

청해부대 20진 최영함 도복 전달·태권도 교육 봉사

지난해 10월 태권도전통체육단(이사장 김선태, 이하 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대한민국 해군 최영함’으로부터 반기운 소식이 전해졌다. 태권도를 통한 한류문화 전파와 국가위상제고’를 위해 해 있으며, 아멘만파 홍해를 연결해주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강대국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최영함은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청해부대 20진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며 정비를 위해 잠시 정박하는 휴식기간을 활용해 아멘만파 홍해의 증기전함에 위치한 ‘지부티’라는 국가에 재단으로부터 기증받은 도복을 선물하고 지부티의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처럼 최영함의 부대원들은 머니먼 미국방

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민간외교사절단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최영함 부대원들이 찾아간 지부티는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아멘만파 홍해를 연결해주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강대국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최영함의 태권도 교육 등 봉사는 군사력이 아닌 ‘문화전파’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 수 있게끔 해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아프리카를 친 한류문화 전파의 전초기지로 삼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트립플리스

장수군, 농산물우수관리 교육

장수군은 28일 오후 2시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관내 GAP농가와 신규 인증 300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2016년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이하 GAP)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GAP과 농산물이력追溯 관련 규정과 GAP 관련 혜택 안전사용 지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장수군은 2015년 말까지 총 291농가, 372ha GAP인증을 받았으며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을 통해 GAP에 필요한 농용수, 토양·증금속, 토양·일반화학 성분 등에 대해 무료 분석을 실시해 왔다.

군은 GAP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요 특산품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GAP 인증 농가 확대로 장수군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지카바이러스 방역 강화

진안군이 최근 증남면에서 시작되어 유행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진안군보건소는 모기 주요 서식처 및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유충 단계에서 조기 예방될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진단 및 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의심환자 확인 시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집트숲모기에 물려 생기는 감염성 질환으로 발열, 발진, 두통, 눈 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소주증·신생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식품안전 확보 만전

무주군은 새 학기를 앞두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방학 기간 중 관리를 소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식시설과 설비, 조리기구 등에 청결상태에 집중할 계획으로, 냉동냉장시설 및 소독기 작동·내화·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정수기 관리 등의 용수 관리 상태, 부페·변질된 식재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주변 200m 이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 판매하고 있는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슈퍼 등에 대해서도 부정 불량식품 유통 여부와 비위생적 조리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병행해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베트남 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주철, 이하 센터)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가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베 문화교류센터 김영신 원장을 초청 베트남과 한국문화의 차이를 비롯하여 다문화 가정의 갈등발생 원인·원만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기법·자녀 양육 방법에 이르기까지 생활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센터는 앞으로도 필리핀, 중국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이해 및 소통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갈 예정으로 다문화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안=우태만 기자